Investigation for health food intake to prevent damage of the elderly

Hyochung Kim · Meera Kim
Dept. of Family & Consumer Sciences, Inje University
Dep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aimed to survey problems related to the elderly's purchasing trends and habitual use of health food; it was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the monetary and health damage to the elderly of health foods. In February 2006,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71 of the elderly people living in Goyang-si, Kyunggi-Do.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first, more than 50% of the respondents had much interest in health foods, and 42.8% of them answered they were taking health foods. Second, about 62% of 116 respondents who were taking health foods were taking only one kind of them,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and improving their health condition. Third, the major information regarding health foods was acquired from their family members, relatives or friends, or TV, radio and journals. Lastly, 75% of respondents even did not know whether there was a relief system for damage related to health foods.

Key Words: the elderly, health foods, intake pattern

I. 서론

보건의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함에 이어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또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단순히 평균연령의 증가만이 아닌 삶의 질이 높아진 노년기의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노인들도 더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욕구가 높아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식품은 일반인들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섭취하는 식품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건강보양식품이 설계되어오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일반식품에 비해 특별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 즉 보건과 건강증진 등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식품을 일컫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2002년에 제정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법률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말·파포·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http://www.klw.go.kr/CNT2/Easy/MCN2EasyLawService.jsp?s_lawrnost=67553)"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 식품법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 현재는 특수영양식품 중 일부, 그리고 인삼절탕류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은 자신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보양식품을 섭취하고 있고 이러한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니면에 대한 인식없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소비자들이 섭취하고 있는 보양식품을 모두 건강식품으로 통칭하였다.

건강식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섭취비용을 살펴보면 안정수, 남철현(1990)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52.2%, 이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자료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280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되었다. 본 조사에 앞서 2006년 1월에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설문지의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개선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2월에 훈련한 면접조사원 6명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271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들(김서경, 정연주, 1998; 박지연, 2000; 최양찬, 1997)을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월평균소득 등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 섭취실태, 섭취하고 있는 건강식품의 개수, 섭취이유,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원, 구입가격, 구입처, 가격지지도, 부작용 경험이유, 피해구제법의 인지도 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면접조사 사사 조사대상자의 섭취실탐을 설계한 후 현재 섭취하고 있는 건강식품의 개수, 섭취이유,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원, 구입가격, 구입처, 가격지지도, 부작용 경험이유, 피해구제방법의 인지도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s로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건강식품의 섭취실태에 대한 모든 문항에 대하여 반도, 백분율, 평균, 표준표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건강식품의 섭취실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 \chi^2 \)분석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남성이 49.1%, 여성이 50.9%이었고, 연령은 65~69세 19.6%, 70~74세 37.3%, 75~79세 26.9%, 80~84세 10.7% 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0.6%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이상(25.8%), 초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25.5%)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8.6%가 배우자라고 하였고, 월평균소득은 200,000원~400,000원 미만이 46.9%를 차지하였다.

2. 건강상태에 대한 관심도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실질구한 결과 〈표 2〉과 같이 응답자의 32.8%가 '대체로 관심이 있다', 21.8%가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과반수 이상이 건강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과 학력에 따라 관심도

<table>
<thead>
<tr>
<th>변수</th>
<th>구분</th>
<th>전력 관심이 없다</th>
<th>보통이 있다</th>
<th>대체로 관심이 있다</th>
<th>매우 관심이 있다</th>
<th>계</th>
<th>$\chi^2$ Value</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남성</td>
<td>15(11.3)</td>
<td>18(13.5)</td>
<td>33(24.8)</td>
<td>40(30.1)</td>
<td>133(100.0)</td>
<td>4.01</td>
</tr>
<tr>
<td></td>
<td>여성</td>
<td>9(5.8)</td>
<td>21(15.2)</td>
<td>28(20.3)</td>
<td>49(35.5)</td>
<td>138(100.0)</td>
<td></td>
</tr>
<tr>
<td>연령</td>
<td>65~69세</td>
<td>3(2.1)</td>
<td>5(3.7)</td>
<td>20(13.7)</td>
<td>18(13.4)</td>
<td>34(25.7)</td>
<td>60(44.4)</td>
</tr>
<tr>
<td></td>
<td>70~74세</td>
<td>9(6.2)</td>
<td>17(12.8)</td>
<td>26(18.2)</td>
<td>29(21.3)</td>
<td>63(47.1)</td>
<td></td>
</tr>
<tr>
<td></td>
<td>75~79세</td>
<td>8(5.6)</td>
<td>16(12.1)</td>
<td>9(6.4)</td>
<td>23(17.2)</td>
<td>44(32.7)</td>
<td></td>
</tr>
<tr>
<td></td>
<td>80~84세 이상</td>
<td>2(1.4)</td>
<td>6(4.5)</td>
<td>0</td>
<td>5</td>
<td>13(9.8)</td>
<td></td>
</tr>
<tr>
<td>학력</td>
<td>초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td>
<td>6(4.2)</td>
<td>15(11.3)</td>
<td>3(2.1)</td>
<td>29(21.3)</td>
<td>44(32.7)</td>
<td></td>
</tr>
<tr>
<td></td>
<td>중학교 졸업</td>
<td>5(3.7)</td>
<td>10(7.5)</td>
<td>14(10.3)</td>
<td>16(12.1)</td>
<td>45(33.9)</td>
<td></td>
</tr>
<tr>
<td></td>
<td>고등학교 졸업</td>
<td>9(6.4)</td>
<td>7(5.3)</td>
<td>20(14.7)</td>
<td>24(17.9)</td>
<td>40(30.1)</td>
<td></td>
</tr>
<tr>
<td></td>
<td>전문대졸 이상</td>
<td>3(2.1)</td>
<td>11(8.3)</td>
<td>24(17.9)</td>
<td>20(14.7)</td>
<td>48(35.8)</td>
<td></td>
</tr>
<tr>
<td>배우자 유무</td>
<td>배우자 유</td>
<td>17(12.6)</td>
<td>26(19.6)</td>
<td>49(36.3)</td>
<td>59(44.1)</td>
<td>181(136.0)</td>
<td>6.06</td>
</tr>
<tr>
<td></td>
<td>배우자 무</td>
<td>6(4.2)</td>
<td>13(9.8)</td>
<td>39(29.0)</td>
<td>21(15.7)</td>
<td>81(60.0)</td>
<td></td>
</tr>
<tr>
<td>월평균소득</td>
<td>100,000원 미만</td>
<td>0(0)</td>
<td>4(3.2)</td>
<td>1(0.8)</td>
<td>4(3.2)</td>
<td>14(10.7)</td>
<td></td>
</tr>
<tr>
<td></td>
<td>100,000원~200,000원 미만</td>
<td>2(1.5)</td>
<td>5(3.8)</td>
<td>8(6.0)</td>
<td>12(8.9)</td>
<td>27(20.3)</td>
<td></td>
</tr>
<tr>
<td></td>
<td>200,000원~300,000원 미만</td>
<td>7(5.3)</td>
<td>11(8.3)</td>
<td>13(9.8)</td>
<td>24(17.9)</td>
<td>57(43.1)</td>
<td></td>
</tr>
<tr>
<td></td>
<td>300,000원~400,000원 미만</td>
<td>2(1.5)</td>
<td>6(4.6)</td>
<td>12(9.0)</td>
<td>25(18.8)</td>
<td>45(34.0)</td>
<td></td>
</tr>
<tr>
<td></td>
<td>400,000원~500,000원 미만</td>
<td>4(2.9)</td>
<td>3(2.3)</td>
<td>18(13.8)</td>
<td>3(2.2)</td>
<td>32(24.1)</td>
<td></td>
</tr>
<tr>
<td></td>
<td>500,000원~600,000원 미만</td>
<td>5(3.7)</td>
<td>4(3.0)</td>
<td>8(6.0)</td>
<td>12(8.9)</td>
<td>29(21.7)</td>
<td></td>
</tr>
<tr>
<td></td>
<td>600,000원 이상</td>
<td>3(2.2)</td>
<td>6(4.5)</td>
<td>15(11.3)</td>
<td>9(6.8)</td>
<td>33(25.3)</td>
<td></td>
</tr>
<tr>
<td>계</td>
<td>23(17.2)</td>
<td>39(29.0)</td>
<td>61(46.1)</td>
<td>59(44.1)</td>
<td>271(206.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0.05  **p<0.01
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도 연령이 많은 응답자가 건강실품
에 '대체로 관심이 있다' 또는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이 높았으며(χ²=26.31, p<.05), 초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진 응답자가 다른 학력수준의 응답
자에 비해 '대체로 관심이 있다' 또는 '매우 관심이 있다'
하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²=27.68, p<.01).
연령이 많고 초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응답자가 건강실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이 많은 응답자의 건강실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
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거나 관련하
기 위한 것이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3. 건강실품의 섭취실태

건강실품의 섭취실태를 살펴보면, 42.8%의 응답자가
현재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에 섭취했으나 현재
섭취하지 않는 응답자가 28.4%, 한편도 섭취한 적이
없는 응답자가 28.8%로 나타났다.<표 3>에 보기로,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경우(χ²=26.91, p<.001), 배우자가 없
는 경우(χ²=13.56, p<.01), 건강실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χ²=38.17, p<.001) 현재 섭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건강실품을 섭취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들은
대상으로 그 이유를 점차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56.4%
가 건강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
었고, 17.9%는 건강실품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16.7%는 건강실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4. 섭취하고 있는 건강실품의 개수

현재 건강실품을 섭취하고 있는 응답자 116명을 대상
으로 섭취하고 있는 건강실품의 개수를 살펴보면, 1개의

<표 3> 건강실품의 섭취실태

<table>
<thead>
<tr>
<th>변수</th>
<th>구분</th>
<th>섭취한 적 없음</th>
<th>과거에 섭취했으나 현재 섭취하지 않음</th>
<th>현재 섭취하고 있음</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남성</td>
<td>51(39.3)</td>
<td>46(34.6)</td>
<td>36(27.1)</td>
<td>133(100.0)</td>
</tr>
<tr>
<td></td>
<td>여성</td>
<td>27(19.6)</td>
<td>31(22.4)</td>
<td>80(60.0)</td>
<td>138(100.0)</td>
</tr>
<tr>
<td>연령</td>
<td>65-69세</td>
<td>16(32.0)</td>
<td>20(37.7)</td>
<td>17(32.1)</td>
<td>53(100.0)</td>
</tr>
<tr>
<td></td>
<td>70-74세</td>
<td>22(21.8)</td>
<td>27(28.7)</td>
<td>52(51.5)</td>
<td>101(100.0)</td>
</tr>
<tr>
<td></td>
<td>75-79세</td>
<td>27(37.0)</td>
<td>21(28.8)</td>
<td>25(34.2)</td>
<td>73(100.0)</td>
</tr>
<tr>
<td></td>
<td>80-84세</td>
<td>9(31.0)</td>
<td>7(24.2)</td>
<td>13(44.8)</td>
<td>39(100.0)</td>
</tr>
<tr>
<td></td>
<td>85세 이상</td>
<td>4(25.7)</td>
<td>2(13.3)</td>
<td>9(60.0)</td>
<td>15(100.0)</td>
</tr>
<tr>
<td>학력</td>
<td>초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td>
<td>20(29.0)</td>
<td>11(15.9)</td>
<td>38(55.1)</td>
<td>69(100.0)</td>
</tr>
<tr>
<td></td>
<td>중학교 졸업</td>
<td>14(28.6)</td>
<td>17(34.7)</td>
<td>18(36.7)</td>
<td>49(100.0)</td>
</tr>
<tr>
<td></td>
<td>고등학교 졸업</td>
<td>22(26.5)</td>
<td>25(30.1)</td>
<td>36(43.4)</td>
<td>83(100.0)</td>
</tr>
<tr>
<td></td>
<td>전문학교 졸업 이상</td>
<td>22(31.4)</td>
<td>24(34.3)</td>
<td>24(34.3)</td>
<td>70(100.0)</td>
</tr>
<tr>
<td>농업</td>
<td>배우자 유부</td>
<td>52(28.0)</td>
<td>65(34.9)</td>
<td>69(37.1)</td>
<td>166(100.0)</td>
</tr>
<tr>
<td></td>
<td>배우자 무</td>
<td>25(30.6)</td>
<td>12(14.1)</td>
<td>47(55.3)</td>
<td>85(100.0)</td>
</tr>
<tr>
<td>농정</td>
<td>100,000원 미만</td>
<td>7(58.3)</td>
<td>0(0.0)</td>
<td>5(41.7)</td>
<td>12(100.0)</td>
</tr>
<tr>
<td></td>
<td>100,000원~200,000원 미만</td>
<td>13(34.2)</td>
<td>10(26.3)</td>
<td>15(38.5)</td>
<td>38(100.0)</td>
</tr>
<tr>
<td></td>
<td>200,000원~300,000원 미만</td>
<td>25(36.8)</td>
<td>15(22.1)</td>
<td>28(41.2)</td>
<td>68(100.0)</td>
</tr>
<tr>
<td></td>
<td>300,000원~400,000원 미만</td>
<td>15(25.4)</td>
<td>16(27.1)</td>
<td>28(47.5)</td>
<td>59(100.0)</td>
</tr>
<tr>
<td></td>
<td>400,000원~500,000원 미만</td>
<td>31(18.7)</td>
<td>6(37.5)</td>
<td>7(43.8)</td>
<td>45(100.0)</td>
</tr>
<tr>
<td></td>
<td>500,000원~600,000원 미만</td>
<td>51(12.8)</td>
<td>14(35.9)</td>
<td>20(51.3)</td>
<td>39(100.0)</td>
</tr>
<tr>
<td></td>
<td>600,000원 이상</td>
<td>10(25.7)</td>
<td>16(41.0)</td>
<td>13(33.3)</td>
<td>39(100.0)</td>
</tr>
<tr>
<td>건강</td>
<td>전히 관심이 없다</td>
<td>11(47.8)</td>
<td>10(43.5)</td>
<td>2(8.7)</td>
<td>23(100.0)</td>
</tr>
<tr>
<td>석류</td>
<td>발로 관심이 없다</td>
<td>16(41.0)</td>
<td>10(25.7)</td>
<td>13(33.3)</td>
<td>39(100.0)</td>
</tr>
<tr>
<td>대만</td>
<td>대체로 관심이 있다</td>
<td>13(21.3)</td>
<td>27(44.3)</td>
<td>21(34.4)</td>
<td>61(100.0)</td>
</tr>
<tr>
<td></td>
<td>대체로 관심이 없다</td>
<td>30(33.7)</td>
<td>18(20.2)</td>
<td>41(46.8)</td>
<td>83(100.0)</td>
</tr>
<tr>
<td></td>
<td>매우 관심이 있다</td>
<td>8(13.6)</td>
<td>12(20.3)</td>
<td>36(66.1)</td>
<td>56(100.0)</td>
</tr>
<tr>
<td>계</td>
<td>78(28.8)</td>
<td>77(28.4)</td>
<td>116(42.8)</td>
<td>271(100.0)</td>
<td></td>
</tr>
</tbody>
</table>

**p<.01 ***p<.001
<표 4> 섬취하고 있는 건강식품의 개수 차이 비교

<table>
<thead>
<tr>
<th>변수</th>
<th>구분</th>
<th>평균 1</th>
<th>평균 2</th>
<th>T/F Value</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남성</td>
<td>1.72</td>
<td>1.56</td>
<td>.18</td>
</tr>
<tr>
<td></td>
<td>여성</td>
<td>1.63</td>
<td>1.02</td>
<td></td>
</tr>
<tr>
<td>연령</td>
<td>65-69세</td>
<td>1.54</td>
<td>1.46</td>
<td></td>
</tr>
<tr>
<td></td>
<td>70-74세</td>
<td>1.96</td>
<td>1.47</td>
<td></td>
</tr>
<tr>
<td></td>
<td>75-79세</td>
<td>1.28</td>
<td>.54</td>
<td></td>
</tr>
<tr>
<td></td>
<td>80-84세</td>
<td>1.00</td>
<td>.00</td>
<td></td>
</tr>
<tr>
<td></td>
<td>85세 이상</td>
<td>1.33</td>
<td>.50</td>
<td></td>
</tr>
<tr>
<td>학력</td>
<td>초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td>
<td>1.18</td>
<td>.51</td>
<td></td>
</tr>
<tr>
<td></td>
<td>중등학교 졸업</td>
<td>1.50</td>
<td>.62</td>
<td></td>
</tr>
<tr>
<td></td>
<td>고등학교 졸업</td>
<td>2.28</td>
<td>1.80</td>
<td></td>
</tr>
<tr>
<td></td>
<td>전문대학 졸업 이상</td>
<td>1.59</td>
<td>.83</td>
<td></td>
</tr>
<tr>
<td>비무자 유무</td>
<td>비무자 유</td>
<td>1.88</td>
<td>1.44</td>
<td>.39**</td>
</tr>
<tr>
<td></td>
<td>비무자 무</td>
<td>1.32</td>
<td>.63</td>
<td></td>
</tr>
<tr>
<td>월평균 소득</td>
<td>100,000원 미만</td>
<td>1.20</td>
<td>.45</td>
<td></td>
</tr>
<tr>
<td></td>
<td>100,000원~200,000원 미만</td>
<td>1.27</td>
<td>1.03</td>
<td></td>
</tr>
<tr>
<td></td>
<td>200,000원~300,000원 미만</td>
<td>1.46</td>
<td>.89</td>
<td></td>
</tr>
<tr>
<td></td>
<td>300,000원~400,000원 미만</td>
<td>2.21</td>
<td>1.93</td>
<td></td>
</tr>
<tr>
<td></td>
<td>400,000원~500,000원 미만</td>
<td>1.57</td>
<td>.79</td>
<td></td>
</tr>
<tr>
<td></td>
<td>500,000원~600,000원 미만</td>
<td>1.60</td>
<td>.75</td>
<td></td>
</tr>
<tr>
<td></td>
<td>600,000원 이상</td>
<td>1.62</td>
<td>.96</td>
<td></td>
</tr>
<tr>
<td>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td>
<td>전혀 관심이 없다</td>
<td>1.00</td>
<td>1.00</td>
<td>1.55</td>
</tr>
<tr>
<td></td>
<td>별로 관심이 없다</td>
<td>2.15</td>
<td>2.51</td>
<td></td>
</tr>
<tr>
<td></td>
<td>보통이다</td>
<td>1.57</td>
<td>.75</td>
<td></td>
</tr>
<tr>
<td></td>
<td>대체로 관심이 있다</td>
<td>1.71</td>
<td>1.08</td>
<td>.88</td>
</tr>
<tr>
<td></td>
<td>매우 관심이 있다</td>
<td>1.51</td>
<td>.88</td>
<td></td>
</tr>
</tbody>
</table>

* p<0.05 ** p<0.01; a, b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로 한 종류의 변수에서 같은 숫자는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음.
자 등, 2002; 전보현, 이효자, 2000)와 일치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응답자들이 건강상의 목적으로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섭취이유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관심정도가 ‘보통’ 또는 ‘대체로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전혀 관심이 없다’‘별로 관심이 없다’‘매우 관심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일반적인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섭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은 반면,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섭취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았다 ($\chi^2=41.62, p<.05$).

6.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원

[그림 3]은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출 자료 이외에서 알

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족, 친척, 친구
(37.1%), 레이크, 친구, 친척, 자녀 및 (37.1%)로부터 정보
을 얻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의사,
약사, 간호사(14.6%)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센터대
상으로 한 설문연구들의 결과(박지연, 2000; 이은주 등,
1996)와 일치하는 것으로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주된 이유
가 일반적인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
를 의료진이나 식품영양과, 영양사와 같은 전문가에 의

<table>
<thead>
<tr>
<th>변수</th>
<th>구분</th>
<th>①</th>
<th>②</th>
<th>③</th>
<th>④</th>
<th>⑤</th>
<th>⑥</th>
<th>⑦</th>
<th>계</th>
<th>$\chi^2$</th>
<th>Value</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남성</td>
<td>24(66.7)</td>
<td>6(16.7)</td>
<td>2(5.5)</td>
<td>2(5.5)</td>
<td>1(2.8)</td>
<td>0(0.0)</td>
<td>1(2.8)</td>
<td>36(100.0)</td>
<td>7.89</td>
<td></td>
</tr>
<tr>
<td></td>
<td>여성</td>
<td>46(45.0)</td>
<td>19(23.7)</td>
<td>14(17.5)</td>
<td>5(6.2)</td>
<td>1(1.3)</td>
<td>4(5.0)</td>
<td>11(1.3)</td>
<td>80(100.0)</td>
<td></td>
<td></td>
</tr>
<tr>
<td>연령</td>
<td>65~69세</td>
<td>7(41.2)</td>
<td>3(17.6)</td>
<td>4(23.5)</td>
<td>1(5.9)</td>
<td>1(5.9)</td>
<td>0(0.0)</td>
<td>1(5.9)</td>
<td>17(100.0)</td>
<td>21.76</td>
<td></td>
</tr>
<tr>
<td></td>
<td>70~74세</td>
<td>24(46.2)</td>
<td>13(25.5)</td>
<td>9(17.3)</td>
<td>2(3.8)</td>
<td>0(0.0)</td>
<td>3(5.8)</td>
<td>1(1.9)</td>
<td>52(100.0)</td>
<td></td>
<td></td>
</tr>
<tr>
<td></td>
<td>75~79세</td>
<td>16(64.0)</td>
<td>5(20.0)</td>
<td>1(4.0)</td>
<td>3(12.0)</td>
<td>0(0.0)</td>
<td>0(0.0)</td>
<td>0(0.0)</td>
<td>25(100.0)</td>
<td></td>
<td></td>
</tr>
<tr>
<td></td>
<td>80세이상</td>
<td>8(61.5)</td>
<td>1(7.7)</td>
<td>1(7.7)</td>
<td>1(7.7)</td>
<td>1(7.7)</td>
<td>0(0.0)</td>
<td>0(0.0)</td>
<td>6(100.0)</td>
<td></td>
<td></td>
</tr>
<tr>
<td>학력</td>
<td>초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td>
<td>20(52.6)</td>
<td>6(15.8)</td>
<td>7(18.4)</td>
<td>2(5.3)</td>
<td>0(0.0)</td>
<td>3(7.9)</td>
<td>0(0.0)</td>
<td>36(100.0)</td>
<td>16.92</td>
<td></td>
</tr>
<tr>
<td></td>
<td>중학교 졸업</td>
<td>7(38.9)</td>
<td>6(33.3)</td>
<td>3(16.7)</td>
<td>0(0.0)</td>
<td>1(5.6)</td>
<td>0(0.0)</td>
<td>1(5.6)</td>
<td>18(100.0)</td>
<td></td>
<td></td>
</tr>
<tr>
<td></td>
<td>고등학교 졸업</td>
<td>20(55.3)</td>
<td>6(22.2)</td>
<td>4(11.1)</td>
<td>2(5.6)</td>
<td>1(2.8)</td>
<td>2(2.8)</td>
<td>0(0.0)</td>
<td>36(100.0)</td>
<td></td>
<td></td>
</tr>
<tr>
<td></td>
<td>전문대학 졸업 이상</td>
<td>13(54.2)</td>
<td>5(20.8)</td>
<td>2(8.3)</td>
<td>3(12.5)</td>
<td>0(0.0)</td>
<td>0(0.0)</td>
<td>1(4.2)</td>
<td>24(100.0)</td>
<td></td>
<td></td>
</tr>
<tr>
<td>계층</td>
<td>배우자 유</td>
<td>37(53.6)</td>
<td>18(26.1)</td>
<td>9(13.0)</td>
<td>3(4.3)</td>
<td>0(0.0)</td>
<td>1(1.5)</td>
<td>1(1.5)</td>
<td>68(100.0)</td>
<td>7.60</td>
<td></td>
</tr>
<tr>
<td></td>
<td>배우자 무</td>
<td>23(48.9)</td>
<td>7(14.9)</td>
<td>7(14.9)</td>
<td>4(8.5)</td>
<td>2(4.3)</td>
<td>3(6.4)</td>
<td>1(2.1)</td>
<td>47(100.0)</td>
<td></td>
<td></td>
</tr>
<tr>
<td>sources</td>
<td>100,000원 미만</td>
<td>4(80.0)</td>
<td>1(20.0)</td>
<td>0(0.0)</td>
<td>0(0.0)</td>
<td>0(0.0)</td>
<td>0(0.0)</td>
<td>0(0.0)</td>
<td>5(100.0)</td>
<td></td>
<td></td>
</tr>
<tr>
<td></td>
<td>100,000원~200,000원 미만</td>
<td>11(73.3)</td>
<td>3(20.0)</td>
<td>1(6.7)</td>
<td>0(0.0)</td>
<td>0(0.0)</td>
<td>0(0.0)</td>
<td>0(0.0)</td>
<td>15(100.0)</td>
<td></td>
<td></td>
</tr>
<tr>
<td></td>
<td>200,000원~300,000원 미만</td>
<td>15(53.5)</td>
<td>5(17.9)</td>
<td>7(25.0)</td>
<td>0(0.0)</td>
<td>1(3.6)</td>
<td>0(0.0)</td>
<td>1(3.6)</td>
<td>26(100.0)</td>
<td>50.33</td>
<td></td>
</tr>
<tr>
<td></td>
<td>300,000원~400,000원 미만</td>
<td>11(39.3)</td>
<td>10(35.7)</td>
<td>3(10.7)</td>
<td>1(3.6)</td>
<td>0(0.0)</td>
<td>3(10.7)</td>
<td>0(0.0)</td>
<td>26(100.0)</td>
<td></td>
<td></td>
</tr>
<tr>
<td></td>
<td>400,000원~500,000원 미만</td>
<td>2(26.8)</td>
<td>0(0.0)</td>
<td>0(0.0)</td>
<td>0(0.0)</td>
<td>0(0.0)</td>
<td>0(0.0)</td>
<td>0(0.0)</td>
<td>7(100.0)</td>
<td></td>
<td></td>
</tr>
<tr>
<td></td>
<td>500,000원~600,000원 미만</td>
<td>10(50.0)</td>
<td>4(20.0)</td>
<td>1(5.0)</td>
<td>3(15.0)</td>
<td>1(5.0)</td>
<td>0(0.0)</td>
<td>1(5.0)</td>
<td>20(100.0)</td>
<td></td>
<td></td>
</tr>
<tr>
<td></td>
<td>600,000원 이상</td>
<td>7(53.8)</td>
<td>2(15.4)</td>
<td>0(0.0)</td>
<td>2(15.4)</td>
<td>1(7.7)</td>
<td>0(0.0)</td>
<td>1(7.7)</td>
<td>13(10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 $p < .05$

① 일반적인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②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③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④ 일상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⑤ 정서적 불안을 위해서 ⑥ 의사, 약사, 가족, 친구의 권유 때문에 ⑦ 기타

- 854 -
존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남으로써 건강식품에 대한 오용 또는 남용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4] 건강식품의 구입장소

7. 건강식품의 구입장소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곳에 대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본인의 건강식품 구입원을 모두 표시한 것의 요구한 결과 [그림 4]과 같이 선물받음(29.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약국(26.5%), 건강식품 전문점(11.9%), 이는 사람으로부터 구입(9.3%), 수퍼마켓 또는 대형마트(5.3%), 홍보(5.3%) 순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성호, 황영복, 1997; 박지연, 2000; 유양자 등, 2002)과 비교해 볼 때, 노인의 경우 성인에 비해 선물로 받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또한 최근에는 TV 홍보광고를 통해 건강식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광고 이용하여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8. 건강식품의 구입가격

건강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그림 5]와 같이 응답자의 30.2%는 '많 보겠다'고 응답하였고 30,000원 미만을 지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7%, 30,000~60,000원 미만이 25.9%, 120,000원 이상이 12.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구입가격이 다양한 것은 섭취하고 있는 건강식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한 섭취하고 있는 개수도 응답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건강식품의 구입장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이 선물을 받아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건강식품의
구급구호는 인구동계학적 특성 및 건강실태에 대한 관점 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9. 건강실태에 대한 가격 인지도

건강실태에 대한 가격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table>
<thead>
<tr>
<th>변수</th>
<th>구분</th>
<th>매우 비дов</th>
<th>조금 비도</th>
<th>덜 비도</th>
<th>매우 비дов</th>
<th>계</th>
<th>(X^2) Value</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남성</td>
<td>11(2.6)</td>
<td>4(11.1)</td>
<td>14(38.9)</td>
<td>9(25.0)</td>
<td>8(22.2)</td>
<td>36(100.0)</td>
</tr>
<tr>
<td></td>
<td>여성</td>
<td>21(2.5)</td>
<td>8(10.0)</td>
<td>26(32.5)</td>
<td>36(45.0)</td>
<td>8(10.0)</td>
<td>80(100.0)</td>
</tr>
<tr>
<td>연령</td>
<td>65-69세</td>
<td>0(0)</td>
<td>2(11.8)</td>
<td>4(23.5)</td>
<td>11(64.7)</td>
<td>0(0)</td>
<td>17(100.0)</td>
</tr>
<tr>
<td></td>
<td>70-74세</td>
<td>2(3.8)</td>
<td>5(9.6)</td>
<td>21(40.4)</td>
<td>17(32.7)</td>
<td>7(13.5)</td>
<td>52(100.0)</td>
</tr>
<tr>
<td></td>
<td>75-79세</td>
<td>1(4.0)</td>
<td>2(8.0)</td>
<td>5(20.0)</td>
<td>9(36.0)</td>
<td>8(32.0)</td>
<td>25(100.0)</td>
</tr>
<tr>
<td></td>
<td>80-84세</td>
<td>0(0)</td>
<td>1(7.7)</td>
<td>6(46.1)</td>
<td>5(38.5)</td>
<td>1(7.7)</td>
<td>13(100.0)</td>
</tr>
<tr>
<td></td>
<td>85세 이상</td>
<td>0(0)</td>
<td>2(22.2)</td>
<td>4(44.5)</td>
<td>3(33.3)</td>
<td>0(0)</td>
<td>9(100.0)</td>
</tr>
<tr>
<td>수혈 우려 학력</td>
<td>초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td>
<td>11(2.6)</td>
<td>4(10.5)</td>
<td>17(44.7)</td>
<td>12(31.8)</td>
<td>4(10.5)</td>
<td>36(100.0)</td>
</tr>
<tr>
<td></td>
<td>중학교 졸업</td>
<td>11(5.6)</td>
<td>1(5.8)</td>
<td>9(44.4)</td>
<td>5(27.8)</td>
<td>3(16.6)</td>
<td>16(100.0)</td>
</tr>
<tr>
<td></td>
<td>고등학교 졸업</td>
<td>1(2.8)</td>
<td>3(8.4)</td>
<td>7(19.4)</td>
<td>18(50.0)</td>
<td>7(19.4)</td>
<td>36(100.0)</td>
</tr>
<tr>
<td></td>
<td>전문대학 졸업 이상</td>
<td>0(0)</td>
<td>4(16.7)</td>
<td>8(33.3)</td>
<td>2(8.3)</td>
<td>2(8.3)</td>
<td>24(100.0)</td>
</tr>
<tr>
<td>특성</td>
<td>배우자 유무</td>
<td>매우 비도</td>
<td>11(1.4)</td>
<td>3(4.3)</td>
<td>20(40.8)</td>
<td>25(36.2)</td>
<td>12(17.4)</td>
</tr>
<tr>
<td></td>
<td>배우자 유</td>
<td>2(4.3)</td>
<td>9(19.1)</td>
<td>12(25.5)</td>
<td>20(42.8)</td>
<td>4(8.5)</td>
<td>47(100.0)</td>
</tr>
<tr>
<td></td>
<td>배우자 무</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비급여 소득</td>
<td>100,000원 미만</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td>
<td>100,000원~200,000원 미만</td>
<td>0(0)</td>
<td>0(0)</td>
<td>4(26.7)</td>
<td>6(40.0)</td>
<td>2(13.3)</td>
<td>15(100.0)</td>
</tr>
<tr>
<td></td>
<td>200,000원~300,000원 미만</td>
<td>0(0)</td>
<td>1(3.6)</td>
<td>11(36.6)</td>
<td>13(46.4)</td>
<td>3(10.7)</td>
<td>26(100.0)</td>
</tr>
<tr>
<td></td>
<td>300,000원~400,000원 미만</td>
<td>21(7.1)</td>
<td>3(10.7)</td>
<td>12(42.9)</td>
<td>6(28.6)</td>
<td>3(10.7)</td>
<td>26(100.0)</td>
</tr>
<tr>
<td></td>
<td>400,000원~500,000원 미만</td>
<td>1(14.3)</td>
<td>0(0)</td>
<td>4(57.1)</td>
<td>0(0)</td>
<td>2(28.6)</td>
<td>7(100.0)</td>
</tr>
<tr>
<td></td>
<td>500,000원~600,000원 미만</td>
<td>0(0)</td>
<td>2(10.0)</td>
<td>6(30.0)</td>
<td>9(45.0)</td>
<td>3(15.0)</td>
<td>20(100.0)</td>
</tr>
<tr>
<td></td>
<td>600,000원 이상</td>
<td>0(0)</td>
<td>3(23.1)</td>
<td>2(15.4)</td>
<td>6(46.2)</td>
<td>2(15.4)</td>
<td>13(100.0)</td>
</tr>
<tr>
<td>건강실태</td>
<td>전혀 관심이 없다</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td>
<td>살로 관심이 있다</td>
<td>2(15.4)</td>
<td>1(7.7)</td>
<td>3(23.1)</td>
<td>4(30.8)</td>
<td>3(23.1)</td>
<td>15(100.0)</td>
</tr>
<tr>
<td></td>
<td>보통이다</td>
<td>0(0)</td>
<td>1(4.8)</td>
<td>10(47.6)</td>
<td>10(47.6)</td>
<td>0(0)</td>
<td>21(100.0)</td>
</tr>
<tr>
<td>관심도</td>
<td>대체로 관심이 있다</td>
<td>1(2.4)</td>
<td>4(9.8)</td>
<td>13(31.7)</td>
<td>19(46.3)</td>
<td>4(9.8)</td>
<td>41(100.0)</td>
</tr>
<tr>
<td></td>
<td>매우 관심이 있다</td>
<td>0(0)</td>
<td>6(15.4)</td>
<td>13(33.3)</td>
<td>11(28.2)</td>
<td>9(23.1)</td>
<td>39(100.0)</td>
</tr>
<tr>
<td>계</td>
<td>31(2.6)</td>
<td>12(10.3)</td>
<td>40(34.5)</td>
<td>46(38.8)</td>
<td>16(13.8)</td>
<td>116(100.0)</td>
<td></td>
</tr>
</tbody>
</table>

*p<0.05
10. 건강식품 섭취 후 부작용 경험여부

건강식품을 섭취한 후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응답자의 13.8%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표 7>과 같이 소화불량, 위 쓰리 등의 위장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47.3%), 그 다음으로는 식욕부진(15.8%), 피부질환(15.8%), 기타(미비증상, 변비 등, 15.8%)이었다. 건강식품 섭취 후 위장장애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형연구들의 결과(김성호, 최정택, 1998; 한국소비자 보호원, 2002)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11. 건강식품에 대한 피해구제방법에 대한 인지도

건강식품과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표 8>과 같이 응답자의 75.0%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연령이 80세

![그림 6] 건강식품 섭취 후 부작용 경험여부

<표 7> 건강식품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의 종류

<table>
<thead>
<tr>
<th>변수</th>
<th>구분</th>
<th>빈도(%)</th>
<th>백분율(%)</th>
</tr>
</thead>
<tbody>
<tr>
<td>부작용 종류</td>
<td>위장장애</td>
<td>9</td>
<td>47.3</td>
</tr>
<tr>
<td></td>
<td>식욕부진</td>
<td>3</td>
<td>15.8</td>
</tr>
<tr>
<td></td>
<td>피부질환</td>
<td>3</td>
<td>15.8</td>
</tr>
<tr>
<td></td>
<td>기타(미비증상, 변비 등)</td>
<td>3</td>
<td>15.8</td>
</tr>
<tr>
<td></td>
<td>무통, 민첩증</td>
<td>1</td>
<td>5.3</td>
</tr>
<tr>
<td>계</td>
<td>19</td>
<td>100.0</td>
<td></td>
</tr>
</tbody>
</table>

*부수동일

<표 8> 건강식품에 대한 피해구제방법에 대한 인지도

<table>
<thead>
<tr>
<th>변수</th>
<th>구분</th>
<th>알고 있음</th>
<th>모르고 있음</th>
<th>계</th>
<th>χ² Value</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남성</td>
<td>9(25.0)</td>
<td>27(75.0)</td>
<td>36(100.0)</td>
<td>.00</td>
</tr>
<tr>
<td></td>
<td>여성</td>
<td>20(25.0)</td>
<td>60(75.0)</td>
<td>80(100.0)</td>
<td></td>
</tr>
<tr>
<td>연령</td>
<td>65~69세</td>
<td>6(35.3)</td>
<td>11(64.7)</td>
<td>17(100.0)</td>
<td></td>
</tr>
<tr>
<td></td>
<td>70~74세</td>
<td>15(28.8)</td>
<td>37(71.2)</td>
<td>52(100.0)</td>
<td>9.35</td>
</tr>
<tr>
<td></td>
<td>75~79세</td>
<td>8(32.0)</td>
<td>17(68.0)</td>
<td>25(100.0)</td>
<td></td>
</tr>
<tr>
<td></td>
<td>80~84세</td>
<td>0(0.0)</td>
<td>13(100.0)</td>
<td>13(100.0)</td>
<td></td>
</tr>
<tr>
<td></td>
<td>85세 이상</td>
<td>0(0.0)</td>
<td>9(100.0)</td>
<td>9(100.0)</td>
<td></td>
</tr>
<tr>
<td>학력</td>
<td>초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td>
<td>6(15.8)</td>
<td>32(84.2)</td>
<td>38(100.0)</td>
<td></td>
</tr>
<tr>
<td></td>
<td>중학교 졸업</td>
<td>4(22.2)</td>
<td>14(77.8)</td>
<td>18(100.0)</td>
<td></td>
</tr>
<tr>
<td></td>
<td>고등학교 졸업</td>
<td>10(27.8)</td>
<td>26(72.2)</td>
<td>36(100.0)</td>
<td>3.94</td>
</tr>
<tr>
<td></td>
<td>전문대학 졸업 이상</td>
<td>9(37.5)</td>
<td>15(62.5)</td>
<td>24(100.0)</td>
<td></td>
</tr>
<tr>
<td>배우자 유무</td>
<td>배우자 유</td>
<td>21(30.4)</td>
<td>48(69.6)</td>
<td>69(100.0)</td>
<td>2.68</td>
</tr>
<tr>
<td></td>
<td>배우자 무</td>
<td>6(17.0)</td>
<td>39(83.0)</td>
<td>45(100.0)</td>
<td></td>
</tr>
<tr>
<td>혈청검사 등</td>
<td>혈청검사</td>
<td>100,000원 미만</td>
<td>2(40.0)</td>
<td>3(60.0)</td>
<td>5(100.0)</td>
</tr>
<tr>
<td></td>
<td>100,000원~200,000원 미만</td>
<td>5(33.3)</td>
<td>10(66.7)</td>
<td>15(100.0)</td>
<td></td>
</tr>
<tr>
<td></td>
<td>200,000원~300,000원 미만</td>
<td>4(14.3)</td>
<td>24(85.7)</td>
<td>28(100.0)</td>
<td></td>
</tr>
<tr>
<td></td>
<td>300,000원~400,000원 미만</td>
<td>9(32.1)</td>
<td>19(67.9)</td>
<td>28(100.0)</td>
<td></td>
</tr>
<tr>
<td></td>
<td>400,000원~500,000원 미만</td>
<td>0(0.0)</td>
<td>7(100.0)</td>
<td>7(100.0)</td>
<td></td>
</tr>
<tr>
<td></td>
<td>500,000원~600,000원 미만</td>
<td>6(30.0)</td>
<td>14(70.0)</td>
<td>20(100.0)</td>
<td></td>
</tr>
<tr>
<td></td>
<td>600,000원 이상</td>
<td>3(23.1)</td>
<td>10(76.9)</td>
<td>13(100.0)</td>
<td></td>
</tr>
<tr>
<td>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td>
<td>전혜 관심이 없다</td>
<td>0(0.0)</td>
<td>2(100.0)</td>
<td>2(100.0)</td>
<td></td>
</tr>
<tr>
<td></td>
<td>열망 관심이 없다</td>
<td>4(30.8)</td>
<td>9(69.2)</td>
<td>13(100.0)</td>
<td></td>
</tr>
<tr>
<td></td>
<td>보통이다</td>
<td>7(33.3)</td>
<td>14(66.7)</td>
<td>21(100.0)</td>
<td></td>
</tr>
<tr>
<td></td>
<td>대체로 관심이 있다</td>
<td>8(19.5)</td>
<td>33(80.5)</td>
<td>41(100.0)</td>
<td></td>
</tr>
<tr>
<td></td>
<td>매우 관심이 있다</td>
<td>10(25.6)</td>
<td>29(74.4)</td>
<td>39(100.0)</td>
<td></td>
</tr>
<tr>
<td>계</td>
<td>29(25.0)</td>
<td>87(75.0)</td>
<td>116(100.0)</td>
<td></td>
<td></td>
</tr>
</tbody>
</table>

* p<.05
여성의 경우 피해구제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있는

이상한 경우 피해구제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들 중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건

강식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의 42.8%가 현재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거에 섭취

했던 적이 없는 응답자가 28.4%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섭취하고

있는 건강식품의 개수를 살펴보면, 1개의 건강식품을 섭

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0%로 가장 많았고, 건

강식품의 섭취여부는 일반적인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서가 51.7%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건

강식품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는 자주, 적절, 친구

또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

식품에 대한 가족 인지도에 있어서 응답자의 52.6%가 대

체로도 매우 높은 것으로 느껴졌다. 또한 응답자의 3/4이 건강식품에 대한 피해구제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섭취할 가치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건강식품에 대한

주된 정보원은 가족, 친구, 친구거나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주변사람의

견해나 광고에 의존하여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에 적절하지 않은 건강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위

험으로 건강식품 섭취 시 건강가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무엇 좋을 것이다.

둘째, 노인은 활동력이 저하되어 정보 확득이 어려움

이 더 많아지게 되므로 건강식품에 대해 과학적이고 정

확한 지식없이 건강식품을 섭취할 수가 많다. 특히 노

인의 경우 건강식품을 잘못 섭취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성인에 비해 희박이나 심각히 여러 걸쳐 심각한 피해

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건강식품 섭취에 대한 기본적

인 가이드라인 등이 개발되어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식품과 관련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나타나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이 요구된다. 따라

서 노인복지기관이나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노인들의 대상으로

피해구제방법 및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피해구

제방법이 담긴 안내서를 비치하여 노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노인 소비자교육의 방안으로 제안하

서하였다.

주제어 : 노인, 건강식품, 섭취실태

참고 문헌

김성호, 이정택 (1998)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식

및 안전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보고서.

김용선 (2004) 강원 지역 중년 남녀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실태

과 식습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은 (2000) 대전지역 성인의 식생활 특성과 건강식품

섭취실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상수, 남경현 (1990) 건강식품에 대한 도시지역주민의

의식조사연구, 대전건강센터, 16(2), 43-55.

유상호, 홍승희, 윤심주, 최영식 (2002) 서울지역 성인들의

건강보조식품 섭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

학회지, 18(2), 136-146.


이은주, 노승욱, 이철호 (1996)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장남수, 김지평, 김은경 (1999) 서울지역 여성 노인의 영양실태

와 식생활 형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4(2),

207-218.

전보현, 이효지 (2000) 사무직 남성의 건강보조식품 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16(1), 9-16.

최요한 (1997)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지로청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
yLawService.jsp?lawnum=67533

(2006. 05. 30 접수; 2006. 08. 14 재제)